

여수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거듭난다

정부 공모 선정 사업비 32억 확보 2027년까지 4년간 야간관광 사업 3월 개발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

'밤바다'가 빛나는 여수시가 정부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더욱 빛을 발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2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국비 12억원과 시비 20억원 등 총 32억원이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에 투입된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협력사업인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야간관광을 만들고, 국내외 대표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올해 마지막으로 치른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여수시, 공주시, 성주시 등 3개 지역이 선정됐다.

여수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현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공모에 뽑혔다.

여수는 국제적 야간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밤의 리듬, 여수' (Rhythm of the Night, Yeosu)를 내걸었다.

여수의 다채로운 밤의 모습을 '소리'로 표현하



여수시가 문체부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국동항 수변공원, 남산공원, 예술의 섬 장소 등의 야간관광 경쟁력을 갖춘다.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여수 밤바다. <여수시 제공>

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국동항 수변공원과 남산공원, 예술의 섬 장소 등이 야간관광 경쟁력을 갖춘 예정이다.

여수시는 오는 3월에 '여수시 야간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중·장기적인 야간관광 발전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정재호 여수시 수산관광국장은 "여수시는 문체

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야간관광 브랜드인 '대한민국 밤밤곡곡'에도 지자체 중 최다인 4개소가 선정됨으로써 국내 최고 야간관광 명소로 입증됐다"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그간 '여수밤바다'로만 각인되어 온 여수 야간관광 이미지 변화를 꾀해 국제적인 야간관광 힐링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133억 들여 어르신 3310명에 일자리

지난해보다 255명 늘어

광양시가 지난해보다 255명이 늘어난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작했다.

광양시는 올해 133억 원을 투입해 총 3310명에 게 노인일자리 제공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55명이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광양시, 광양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광양시지회, 중마노인복지관 등 4개 기관을 중심으로 약 11개월간 지역 내 공공시설물 환경정화, 실버카페 운영, 정류소 청소, 경로당 식사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로 추진된다.

시는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구호로 내걸고 "2024년 노

인일자리사업 확대'를 개최했다.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백성호 부의장, 송재천 의원, 신용식 의원, 김정임 의원 및 김재경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노인일자리 참여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 안내와 안전교육 등도 함께 진행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우리시는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사업과 경로당 한궁기기 보급 사업 등을 시행해 어르신들이 당연한 인생 제2막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확대,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공영민 고흥군수 등이 지난 18일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를 개최한 뒤 면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공영민 고흥군수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

"2030년 인구 10만 달성"

고흥군이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1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토론회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건의가 주를 이루는 방식을 탈피하고, 군수와 군민이 지역발전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공영민 군수는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민선 8기 동안 군민과 함께 이룬 성과와 고흥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의사업도 사전에 접수해 공군수가 직접 답변했다. 주민 건의사업은 현장에서 16개 읍면에서 총 80건이 건의됐다.

공군수는 주민들의 안전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거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목표로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열린 토론회의 장이 펼쳐졌다.

토론 주제로는 ▲동일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배후도시 구축 ▲봉래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기 추진 ▲도덕면 귀농·귀촌인 공동주택 조성 등 16개 읍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지역발전을 향한 열망과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밑바탕에는 군민통합이 있고,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고흥의 변화·발전엔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K-디즈니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탄력 받나

노관규 시장, 유인촌 장관 만나 건의 문화콘텐츠 인재양성·제작지원도

노관규 순천시장이 'K-디즈니 순천'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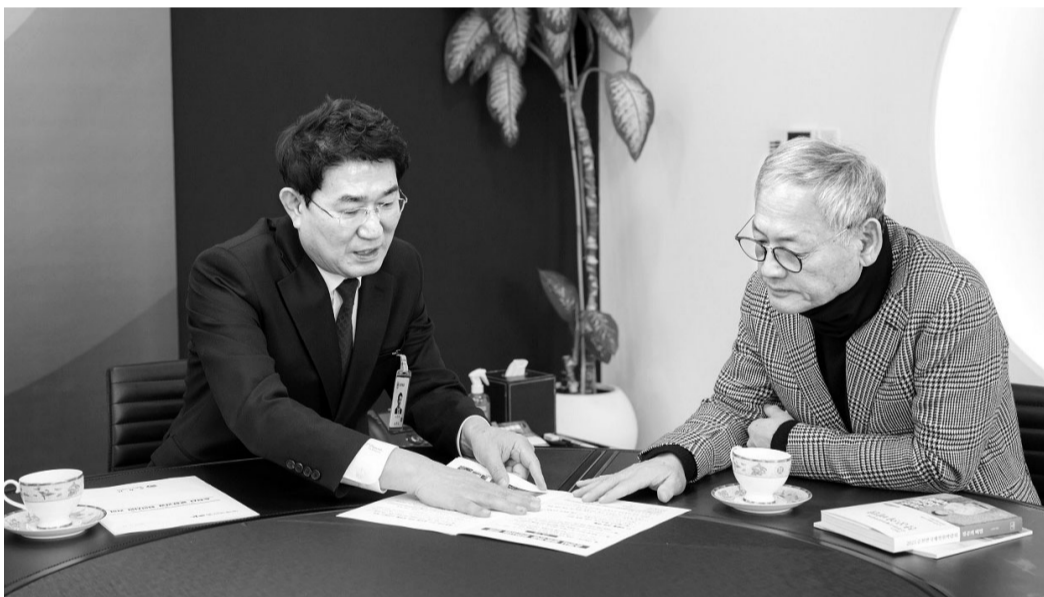
순천시는 노관규 시장이 지난 31일 세종 박연문화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공동 연수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현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노 시장은 유 장관을 만나 애니메이션 집적단지 후속 사업으로 문화콘텐츠 인재양성과 제작지원, 지적재산권(IP) 개발 사업을 건의했다.

올해 애니메이션 집적단지 사업에는 3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노 시장은 오는 10월 순천에서 열리는 '만화·웹툰·애니메이션 산업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K-만화·웹툰'의 대표 축제를 내걸고 웹툰 중주국의 위상을 만들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계의 칸 영화제' (가칭 국제 만화·웹툰 시상식)에 대한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노관규(왼쪽) 순천시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후속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노 시장은 기회발전특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엔터(선도)기업 지방이전 등 기업의 산업 확장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됐다.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최대 200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문화콘텐츠로 피어나는 정원문화도시 순천'을 내걸고 '세계적 문화도시'를 조성할 목표를 세웠다.

애니메이션 산업전 개최를 'K-디즈니 순천'을 만드는 추진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보성군이 오는 2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은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권을 확대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주민 관심 유도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분야는 농특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생활용품, 관광 서비스, 기타 지역 서비스 등 6개다.

대상은 보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제조 및 배송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업체다. 신청업체는 최대 2개 품목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미 1개 품목을 제공하고 있는 기존 공급업체에서도 등록된 제품을 제외하고 1개 품목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